

〈안민가〉의 창작 동기와 의미 해석*

임 주 탁**

차 례

- | | |
|---------------------------|---------------------|
| 1. 서론: 두 가지 의문 | 3. 〈안민가〉의 표현 내용과 방식 |
| 2. 〈안민가〉 관련 서사의 분석과
종합 | 4.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안민가〉의 의미 해석을 둘러싼 논쟁의 발단이 관련 서사와 노래 텍스트에 대한 합리적인 독법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여, 텍스트의 합리적인 독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의문 즉, ‘경덕왕은 왜 화랑을 기리고 찬양했던 충담사를 불러 인민을 다스려 평안하게 하는 길을 노래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가?’ ‘그 요청에 따라 지은 노래는 어째서 유가적 사유의 패러다임을 활용하였는가?’ 하는 의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두 의문을 해소하는 과정은 〈안민가〉 관련 서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노래 텍스트의 의미를 꿰뚫히게 해석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었다. 충담사는 중앙집권적 관료제도의 정착을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교수

추진하는 국왕의 통치 방향에 반대하는 귀족 세력의 대변인으로서 <찬기파랑가>에 상징적으로 제시했던 통치 문제에 관한 생각을 국왕의 요청에 따라 <안민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그 내용은 기파랑과 같은 귀족이 신하의 지위에서 어머니가 지식을 사랑으로 돌보듯 인민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나라가 태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국왕이 지향하는 통치 이념과 원리에 모순되지 않고 부합한다는 생각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안민가>는 특정한 종교 이념이나 사상을 표현한 작품이 아니라 잠재적인 청자가 익숙해 있는 사상과 사유의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통치 문제에 대한 생각을 피력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안민가>의 의미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 안민가, 찬기파랑사뇌가, 충담사, 향가

1. 서론: 두 가지 의문

<안민가>가 유가적 정명론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인민은 인민다워야 한다는 것. 이것이 유가적 정명론의 내용이다. 명분과 실질이 상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명론은 명분론이라 할 수 있다.¹⁾ 그

1) <안민가>가 유교적 이념에 기초한 노래라고 보는 논의는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다.

양주동, 「논어와 국문학」, 『논어』(현암사, 1966), 388~394쪽; 김종우, 『향가문학연구』(이우출판사, 1980), 75~179쪽; 변종현, 「안민가」, 『향가문학연구』(황폐강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일지사, 1993), 437~452쪽; 김문태, 「<안민가>와 서사문맥 -<도솔가>·<처용가>와 관련하여-」, 『도남학보』 13, 도남학회, 1993, 123-143쪽; 나경수, 『향가문학론과 작품연구』(집문당, 1995), 216-242쪽; 하정화, 「신라 향가에 나타난 유가적 윤리성-안민가와 찬기파랑가를 중심으로-」, 『동양예술』

런데 <안민가>의 바탕이 되는 사상에 대해서는 사뭇 다른 논의들이 이어져 왔다.²⁾ 무엇보다 미륵신앙을 가진 승려 충담사가 유가적 정명론을 내세웠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유가적 정명론이 왕정 시대의 보편적 사유이므로 승려가 보편적 사유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주장도 있었고,³⁾ 충담사를 비롯한 당시 신라인이 다양한 종교 사상이 복합되어 형성된 세계관이라는 주장도 있었으며,⁴⁾ 내용은 유교적이지만 화법은 불교적이라는 주장도 있었다.⁵⁾ 일견 모순되는 점을 해명해 보려 한 주장들이다. 하지만 여전히 해명하지 못한 것은 불교(혹은 미륵신앙)를 신봉하였을 충담사가 굳이 유가적 패러다임을 활용한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물음은 따지고 보면 <찬가파랑사뇌가>를 지은 충담사에게 경덕왕이 인민을 다스려 평안하게 하는 노래를 지어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8(한국동양예술학회, 2004), 52-83쪽.

- 2) <안민가>가 불교적인 사상을 표현했다는 논의가 있는가 하면(조평환, 충담의 향가에 대한 일고찰,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4; 윤영옥, 안민가의 이해, 『어문학』 32, 한국어문학회, 1975, 57-80쪽; 윤영옥, 안민가, 『신라가요의 연구』(형설출판사, 1980), 216-241쪽; 최성호, 『신라가요의 연구』(문현각, 1984), 51-55쪽; 이도흠, 「안민가와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화엄사상, 『기전어문학』 3, (수원대 국어국문학회, 1988), 211-215쪽; 이도흠, 「<안민가>의 화쟁시학, 『동아시아 문화연구』 23,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3, 43-90쪽), 전통적인 주력관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으며(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이우출판사, 1981), 293-296쪽), 전통적 제천사상과 외래 삼교(도교, 불교, 유교)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사교융합' 사상으로 보는 논의도 있었다(홍기삼,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연구, 『동악어문연구』 29(동악어문학회, 1994), 1-52쪽). 또한, 풍월도 사상이 기저를 이룬다는 주장도 있었고(유효석, 「풍월계 향가의 장르적 성격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3), 166-180쪽), 노장사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진창영, 안민가·찬가파랑가와 노장사상, 『신라학연구』 7, 위덕대 신라학연구소, 2003, 156-165쪽).
- 3) 김승찬, 「안민가 연구, 『인문논총』 27(부산대학교, 1985), 1-16쪽.
- 4) 홍기삼,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연구, 『동악어문연구』 29(동악어문학회, 1994), 1-52쪽.
- 5) 엄국현, 「안민가>에 나타난 서술방식과 정치철학, 『한국문학논총』 41(한국문학학회, 2005), 77-104쪽.

의문과 관련되어 있다.

군주와 신하와 인민의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에 대응시키는 사유의 패러다임은 유가적 행동 규범 곧 윤리의 출발점이 된다. 가족 질서의 원리를 국가사회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유가적 통치 원리의 기본 발상이고, 유가적 통치의 근간이 되는 규범은 가족 질서의 원리에서 추출된 것이기 때문이다.⁶⁾ 그리고 유가적 행동 규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규범은 부자자효(父子慈孝), 곧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식은 부모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것이다. <안민가>는 바로 이 규범을 핵심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범은 충담사에 의해 새삼 발견된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노래를 짓게 한 경덕왕도 익히 알고 있었을 규범이다. 그렇다면 충담사가 새삼 이 규범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인민을 다스려 평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안민가>를 통해 충담사가 왕이 왕답지 못함을 비판하였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⁷⁾ 눈앞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충담사를 포용할 만큼 경덕왕이 큰 덕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수긍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앞의 의문을 푸는 데에는 <찬기과랑사뇌가>에 대하여 “그 뜻이 매우 높았는데 과연 그런가요?”라는 경덕왕의 물음에 대하여 충담사가 “그렇습니다.”라고 확인하는 대목⁸⁾에 대한 이해가 관건이 된다. 일반적으로 신하된 입장에서는 군주 앞에서 자신과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 뜻이 매우 높다’는 말의 뜻은 충담사의 인격이나 <찬기과랑사뇌가>의 품격이 높다고 해석하기는 곤

6) 임주탁, 향가 전통에서 본 <사모곡>의 주제, 『한국민족문화』 21(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3), 1-19쪽(임주탁, 『옛노래 연구와 교육의 방법』(부산대학교출판부, 2009), 277-298쪽).

7) 비교적 최근의 논의로는 신영명, <안민가>의 정치사상, 『우리문학연구』 31, 우리문학회, 2010, 63-86쪽이 있다.

8) 王曰: “朕嘗聞, ‘讚者婆郎歸國歌, 其意甚高, 是其果乎?’ 對曰: “然” 王曰: “然則, 爲朕作理安民歌.” 『삼국유사』 권 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란하다.⁹⁾ <안민가>를 지은 직후에 경덕왕이 내린 왕사(王師)라는 최고 승직도 극구 사양한 것¹⁰⁾을 보면 적어도 관련 서사 문맥에서 총담사는 겸손한 인물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 인물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은 노래의 가치를 추켜세우는 데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뒤의 의문을 푸는 데에는 몇 가지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하나는 <안민가>의 언어 텍스트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유가적 윤리인 부자자효의 실천을 통한 ‘군군, 신신, 민민(君君, 臣臣, 民民)’의 정명론을 드러내고 있는 듯하지만, 특히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아울러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안민가>의 잠재적인 청자와 관련한 것이다. 경덕왕을 비롯한 잠재적인 청자가 중요하게 생각하였거나 기본적으로 견지했던 사상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인데, 이는 경덕왕대의 통치 방향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셋째, 총담사의 정체가 무엇이나 하는 점이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가 국선 화랑을 따르는 무리에 속해 있었다면, 통치에 관한 국선 화랑의 입장은 경덕왕의 입장과 어떻게 같고 다른가가 해명되어야 한다.

이 글은 제기한 두 가지 의문을 해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으로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 사서를 새로이 읽음으로써 두 가지 의문을 합리적으로 해소해 보고자 한다. 의문의 해소 과정은 <안민가>의 의미 해석을 둘러싼 논쟁을 해결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의문은 <안민가>의 노래 텍스트를 포함한 관련 서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길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9) 최철, 「찬기파랑가의 창작동인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61, 국어국문학회, 1973, 132쪽; 이도흠, 「찬기파랑가 의 새로운 어석과 의미 해석」, 『문경 전영우 박사 화갑기념 국어국문학논총』(수원대 국어국문학과, 1994), 683쪽 등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10) 封王師焉, 僧再拜固辭不受. 『삼국유사』 권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2. 〈안민가〉 관련 서사의 분석과 종합

경덕왕은 왜 <찬기과랑가>를 지은 충담사에게 <안민가>를 짓게 하였는가? 이 물음은 다음과 같은 물음에 대한 해명을 필요로 한다.

첫째, 오악삼산의 신이 나타나 왕을 시위하는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경덕왕이 영승(榮僧, 榮服僧)을 불러 오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충담사는 어떤 인물인가?

넷째, 경덕왕이 <찬기과랑사녀가>에 대해 “그 뜻이 높다던데 과연 그런가요?”라고 물은 것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함인가?

오악삼산의 신이 나타나 왕을 시위하는 현상이 국가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불길한 징조를 드러낸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오악삼산의 신이 신라의 수호신들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신라 국토의 질서가 오악삼산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삼산 혹은 삼신산은 도교의 신선이 사는 산이다. 도교를 신봉하는 이들에게 세계의 중심이 되는 산들이다. 오악은 유가적 관점에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산들이다. 하늘과 땅과 사회의 질서를 상동관계(homology)로 파악하는 세계관의 바탕에는 도교와 유가적 사유가 습합되어 있다. 따라서 오악과 삼산의 신이 국왕을 시위하는 현상은 도교와 습합된 유가적 국가 질서 체계가 상당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조의 첫머리에 “덕경(도덕경) 등을 왕이 예를 갖추어 맞았다.”¹¹⁾라는 진술은 그래서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덕경은 도교의 가르침은 담은 경전이다. 그 경전의 수용은 경덕왕이 도교와 유가적 사유가 습합되어 만들어진, 오악 삼산 중심의 국가 질서 체계를 수립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덕왕의 의지와 상반하게 그 체계가 상당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 체

11) 德經等, 大王備禮受之. 『삼국유사』 권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계의 수립이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관료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시도된 것이라면, 오악삼산 신의 현현은 그 제도의 정착에 대해 상당한 반발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앙집권적 관료제도는 문사(文士) 중심의 국가 질서 체계 수립으로 가시화되게 마련이지만, 신라는 기본적으로 무사(武士) 중심의 나라였고, 귀족(호족) 연합적 성격이 강한 국가 질서 체계를 유지해 왔다. 또한, 중앙집권적 관료제도는 혈연에 의한 왕위 세습을 지향하는데, 신라의 왕위 계승은 어느 특정한 귀족 집안에서 독점한 것이 아니었다. 중앙집권적 관료제도의 정착은 결과적으로는 왕권을 지닌 귀족 집안에게는 유리하나 여타의 귀족 집안에게는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중앙집권적 관료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왕권을 장악하지 못한 진골 귀족층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국왕도 그러하였지만, 신라의 진골 귀족은 화랑도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진흥왕조에 제도화된 화랑도는 국가사회를 위한 공적 임무도 수행하였지만 본질적으로는 진골 귀족의 사조직으로서 성격이 강하다.¹²⁾ 화랑 조직에서 화랑은 귀족이지만 낭도는 신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았던 듯하다. 신라의 골품제도에서 6두품에서 4두품까지의 신분은 관료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만큼 이와 같은 골품 출신보다는 그 이하의 신분이 화랑 조직에 많이 소속되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주인으로 모시는 화랑의 출세 여하에 따라 신분을 초월하여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집권적 관료제도의 정착은 왕권을 장악하지 못한 귀족뿐 아니라 낭도들에게도 매우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경덕왕의 중앙집권적 관료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은 귀족층과 미천한 신분이면서 화랑을

12) 화랑의 신분에 대하여는 三品彰英, 『신라화랑의 연구』(이원호 역)(집문당, 1995), 47-56쪽을 참조하였다. 三品彰英은 화랑 조직이 진골귀족에서 4두품에 이르는 신분에 국한되었다고 보았으나, 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추종하던 집단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었을 것이다. 오악삼산의 신들이 현현하여 경덕왕을 시위하는 현상은 바로 그러한 반발로 인해 국가 질서 체계를 심각하게 동요되거나 될 징조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길은 반발 세력을 권력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그에 대한 배려도 각별하게 하는 것이다. 경덕왕이 충담사를 궁중으로 불러들인 것은 일차적으로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왜 하필 충담사인가? 충담사는 귀족인 화랑의 낭도이면서, 대승 불교(미륵신앙)의 수행자로서 승려로 일컬어질 만큼 낭도들의 지도자 격에 상응하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그의 생각은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화랑과 그에 속한 낭도들의 공식적인 의견이 되는 것이다. 이른바 왕당파와 반왕당파(귀족당파)의 대립이 엄존하는 형국¹³⁾에서 국왕이 반(反)왕당파에 속한 귀족을 직접 초치(招致)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경덕왕은 충담사와 같은 낭승(郎僧)의 초치로써 그 대안적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 서사에 의하면 경덕왕이 충담사를 초치하기 이전에 그가 <찬기파랑사뇌가>를 지어 화랑을 기리고 찬양하는 노래를 지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찬기파랑가>가 언표(言表)하지는 않았지만 ‘높은 뜻’을 담아낸 노래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뜻’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도와 관련되어 있다면 누구보다 충담사가 적임자로 선택될 수 있는 이치다.

선행 연구에서 ‘그 뜻이 매우 높다’라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추정되었다.

① <찬기파랑사뇌가>의 문학적·예술적 성취가 높다.¹⁴⁾

13) 박노준, 찬기파랑가에 대한 일, 이의 고찰, 『어문논집』 19, 안암어문학회, 1977 387-403쪽; 조동일, 「<안민가>에 나타난 정치의식」, 『한국고전시가작품론』(백영 정병욱 선생 10주기추모논문집, 집문당, 1992, 134쪽 등을 참고하였다. 신영명, <찬기파랑가>의 상징체계와 경덕왕대 정치사, 『국제어문』 43, 국제어문학회, 2008, 91-120쪽에서는 경덕왕대의 정체 세력을 이보다 더 세분하여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를 아울러 설정하고 있지만, 이 논의에서는 수용하지 않는다.

14) 이는 일찍부터 널리 수용되고 있는 견해인 듯하다. 최근, 성호경, 「<찬기파랑

② <찬기파랑사뇌가>에 형상화된 기파랑의 됃됨이가 훌륭하다.¹⁵⁾

③ <찬가파랑사뇌가>의 작가인 충담사의 됃됨이가 훌륭하다.¹⁶⁾

①에 의하면, <찬기파랑사뇌가>가 예술적·문학적 성취가 높은 작품이기 때문에 경덕왕은 충담사의 그런 솜씨로 자기를 위해 <안민가>를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국가 사회의 위기 상황에서 예술적·문학적 성취가 높은 노래를 지어달라고 요청했으리라는 추정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다. 예술적·문학적 성취가 높은 노래를 짓는다고 해서 위기 상황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②와 ③은 기본적으로 ‘그 뜻’의 ‘그’를 <찬기파랑사뇌가>로 보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경덕왕이 이미 <찬가파랑사뇌가>를 알고 있었다면 그 언어 텍스트에 표현된 내용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은, <찬기파랑사뇌가>에 고매하고 훌륭한 인격, 혹은 인품의 소유자로서의 ‘기파랑’의 형상 또한 충분히 읽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②는 물을 필요가 없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①과 ③은 충담사라는 인물이 경덕왕 앞에서 낮간지럽게 자신을 추켜세우는 데 동의한 버릇없는 인물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충담사는 국왕이 제안한 ‘왕사’라는 최고 승직도 사양한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자기를 추켜세우는 데 스스로없이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어느 경우든 ‘그 뜻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경덕왕이 ‘나를 위하여 인민을 다스려 평안하게 하는 노래’를 지어달라고

가>의 시세계, 『국어국문학』 136, 국어국문학회, 2004, 233-262쪽의 논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천착한 것이고, 양희철, 당대비평으로 본 ‘기의심고’와 <찬기파랑가>, 『한국시가연구』 18, 한국시가학회, 2005, 43-76쪽의 논의는 ‘기의심고’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깊이 있게 천착한 것이다.

15) 최근의 논의로는 서철원, 향가의 제재로서 화랑 형상의 문학사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29, 한국시가학회, 2010, 110-114쪽을 참고할 수 있다.

16) 최근의 논의로는 이완형, <찬기파랑가>에 숨겨진 의도와 노래의 기능, 『어문학』 96(한국어문학회, 2007), 221-244쪽을 참고할 수 있다.

한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 어느 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¹⁷⁾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다음 한시와 그에 대한 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봄비는 높고 낮은 것을 가리지 않고 내리는데
꽃나무 가지는 길고 짧은 것이 있어라.
春雨無高下, 花枝有短長.

이 시에 대해 ‘이 뜻은 매우 높다(此意甚高)’라는 비평이 있었다고 한다.¹⁸⁾ 그런데 이 자료는 선행 연구에서 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활용되었을 뿐이다. 그 주장의 핵심은 ‘기의심고(其意甚高)’의 ‘의(意)’는 ‘의격(意格)’으로 풀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에는 두 가지 격이 있는데 시의 뜻이 높은 것은 격고라고 말하고, 뜻이 낮은 것은 격하(詩有二格, 詩意高謂之格高, 意下謂之格下)라고 한다.”라는 왕창령(王昌齡)의 견해를 인용하여, ‘의(意)’가 일반적인 ‘의미’의 ‘뜻’이 아니라 시의 격을 말하는 전문 용어로 쓰였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의고(意高)’가 곧 ‘격고(格高)’이므로 ‘기의심고(其意甚高)’는 ‘의고(意高)’가 ‘뜻이 높다, 고상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격(意格)’이 높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본 것이다.¹⁹⁾

하지만 의격(意格) 자체가 시 자체의 문학적·예술적 성취를 이르는

17) 이도흙, 「찬기파랑가 의 새로운 어석과 의미 해석」, 『문경 전영우박사 화갑기념 국어국문학논총』(수원대 국어국문학과, 1994)에서는 “교훈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말한 것으로 보았고, 박수필, 「〈찬기파랑가〉의 문학적 의미와 세계관」, 『동방학』 2,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1996, 82쪽에서는 “풍류도와 화업의 세계관을 서정적으로 융해한 노래라는 의미”라고 해석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들은 유형화하기 어렵지만, ①에 대한 반론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18) 시와 비평은 양희철, 「당대비평(唐代批評)으로 본 ‘기의심고(其意甚高)’와 <찬기파랑가>」, 『한국시가연구』 18(한국시가학회, 2005), 46쪽에서 재인용함.

19) 양희철, 「당대비평(唐代批評)으로 본 ‘기의심고(其意甚高)’와 <찬기파랑가>」, 『한국시가연구』 18(한국시가학회, 2005), 43-76쪽.

말이 아니다. 의격은 생각을 촉발하는 시적 상황인 ‘의경(意境)’에서 촉발되는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갈무리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사변적이거나 사소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거나 생각이나 감정이 의경에 구애될 때 의격은 낮다고 평가된다. 인용된 시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인용한 시의 뜻은 이런 것이다. 즉, “군주의 은혜는 높고 낮음이 없이 두루 미친다고 하지만, 인민들이 그 은혜를 받는 데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다. 꽃가지에 봄비가 내리는 상황이 의경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 의격은 의경(내면에 형상화된 자연 현상) 자체에 집착하지 않고 국가 사회의 통치 문제에까지 미치고 있다. 자연 현상을 바라보며 국가 사회의 현실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의 뜻이 매우 높다고 한 것이다. 결국 시의 뜻이 높다는 말은 시의 지향점이 언표 차원 혹은 개인 차원을 뛰어넘어 더 높은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셈이다.

<찬기파랑사뇌가>에 대하여 ‘그 뜻이 높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하면 문맥이 자연스럽게 읽힌다. 인용한 시는 언표 자체에서는 자연 현상만 형상화되어 있을 뿐이다. 의경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뜻이 높다’라는 비평을 통해 우리는 시인의 생각이 의경 너머에 존재함을 알 수 있게 된다. 인용한 시의 경우는 의경 너머에 존재하는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찬기파랑사뇌가>는 그 자체가 이미 기파랑이란 인물의 고매한 인격을 기리고 찬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너머에 존재하는 ‘매우 높은’ 뜻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또, 그러한 뜻이 더 담겨 있는지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까닭에 경덕왕은 충담사에게 그가 지은 <찬기파랑사뇌가>에 담긴 뜻이, 이전부터 들었던 일반 해석과 마찬가지로, 언표 차원을 넘어서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충담사의 긍정 답변은 자신의 <찬기파랑사뇌가>의 창작에 국가사회의 통치 문제에까지 생각이 미쳤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⁰⁾ 긍정 답변 자

체가 충담사의 인격과는 무관한 것이었던 것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확인 절차가 끝나자마자 경덕왕은 충담사에게 통치 문제에 대한, 충담사의 생각을 노래로 명료화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찬기파랑사뇌>는 단순히 ‘기파랑’을 기리는 노래만이 아니라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기파랑’ 같은 인물의 사회적 역할이 중시되는 시대를 그리워하는 뜻, 거꾸로 말하자면 그런 시대가 부활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 한다면, 결국 <안민가>에 담긴 뜻은 <찬기파랑사뇌가>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낸 뜻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셈이 된다.²¹⁾

3. <안민가>의 표현 내용과 방식

<안민가>에는 실제로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가? 앞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안민가>의 해석을 둘러싼 선행 논의들은 관련 서사 독법

20) 최철, 「찬기파랑가의 창작동인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61, 국어국문학회, 1973, 54쪽에서는 “작품의 내용이 사사로운 個人的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적인 차원에서 理世之道를 밝힌 것”이라고 보면서도, ②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모순을 보여 주었다. 그에 비해 신영명, 「<찬기파랑가>의 상징체계와 경덕왕대 정치사」, 『국제어문』 43, 국제어문학회, 2008, 92쪽에서는 “당대사회의 구원 문제”와 연관 되어 있다고 보고, “충담사의 서원은 당대를 구원할 이상적 인물로서의 화랑의 도래에 있다”고 보았다. 두 논의 모두 <찬기파랑사뇌가>와 <안민가>가 ‘기의심고’라는 사실 확인을 매개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본 점에서는 이 글과 논지가 유사하다.

21) 이도흠, 「찬기파랑가 의 새로운 어석과 의미 해석」, 『문경 전영우박사 화갑기념 국어국문학논총』(수원대 국어국문학과, 1994), 684쪽에서는 “경덕왕만 큼은 안민가와 찬기파랑가의 기능이나 효용이 동질하다고 생각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보았다. <찬기파랑사뇌가>의 언표에 드러나지 않은 의미가 <안민가>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두 노래가 가지고 있는 통치 문제에 관한 사유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지적은 일정하게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안민가>가 불교적 사상을 표현했다는 주장²²⁾이나 풍월도 사상이 그 기저를 이룬다는 주장²³⁾은 충담사가 국선의 무리에 속한 승려라는 사실에 얽매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제외하면 관련 서사나 노래의 언어 텍스트에서 불교나 풍월도 사상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분석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도솔가>를 지은 월명사와 달리, 충담사는 불교적 관점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사유를 피력한 것이 아니라, 경덕왕의 통치 방향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귀족의 관점에서 대안적인 통치 방향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둘째, 노장 사상이 담겨 있다는 주장은 ‘덕경(도덕경)’으로 대표되는 도가 사상의 수용과 삼산 오악 신들의 출몰한 현상을 충담사의 등장과 단선적으로 연결 지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삼산 오악의 신들이 출몰한 현상은 도가적 사유를 수용한 유가적 질서 체계가 순조롭게 정착되지 못하였음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또한, 충담사가 국왕이 주도하는 도가 수용을 지지하는 입장보다는 그 반대의 입장에서 서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안민가>가 전통적 주력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주장²⁴⁾이나, 전통적 제천 사상과 외래 3교의 상호 조화를 이루는 ‘4교 융합’ 사상을 표현했다는 주장²⁵⁾ 등도 수긍하기 어렵다. 경덕왕이 월명사를 초치하여 제의적인 수행했던 것과는 달리, 충담사를 불러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노래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이기 때문이

22) 조평환, 충담의 향가에 대한 일고찰,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4; 윤영옥, 「안민가의 이해」, 『어문학』 32, 한국어문학회, 1975, 57-80쪽; 윤영옥, 「안민가」, 『신라가요의 연구』(형설출판사, 1980), 216-241쪽; 최성호, 『신라가요의 연구』(문현각, 1984), 51-55쪽; 이도흠, 「안민가와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화엄사상」, 『기전어문학』 3, (수원대 국어국문학회, 1988), 211-215쪽; 이도흠, <안민가>의 화쟁시학, 『동아시아문화연구』 23,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3, 43-90쪽.

23) 유효석, 풍월계 향가의 장르적 성격 연구(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3), 166-180쪽.

24)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이우출판사, 1981), 293-296쪽.

25) 홍기삼, 「경덕왕 충담사 표현대덕 연구」, 『동악어문연구』 29(동악어문학회, 1994), 1-52쪽.

다. 그리고 <안민가>는 <도술가>와는 달리, 절대적 존재와의 소통을 통한 소망의 실현 과정을 보여준 노래가 아니라 국왕을 향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뿐이다. 종교적 화합이나 주술적 관념은 관련서사나 노래의 언어 텍스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노래의 언어 텍스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유가적 통치의 근간이 되는 행위 규범인 ‘부자자효’와 유가적 정명론 곧 ‘군군, 신신, 민민’의 사상이다. 그러면 <안민가>는 유가적 사상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승려인 충담사가 왜 유가적 사상을 노래에 담았는가? 이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고 남아 있다.

해독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안민가>에 ‘사랑(愛)’을 베푸는 주체가 아버지와 어머니 곧 부모가 아니라 어머니만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군주는 아버지이고 신하는 어머니라지만 아버지의 구체적인 역할은 설명하지 않은 대신에 어머니가 사랑(愛 또는 慈)을 베푸는 주체로 그려져 있다. 이 점은 매우 특이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도

<안민가>는 ‘군:신:민’ 관계가 조화롭게 유지되며 ‘군·신·민’이 제 구실을 성실히 수행하는 길이 곧 나라(國)가 태평(太平)하는 길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화로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요체는 민(民)이 ‘사랑(愛)’을 알고 ‘사랑’을 먹고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먹고살 수 있어야 ‘이 땅(此地)’을 버리지 않고 ‘이 땅’에 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민가에는 민에게 ‘사랑’을 베푸는 주체가 부(父)나 부모(父母)(친(親))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유일하게 모(母)로 제시되어 있다. 이 점은 유가적 윤리 규범인 부자자효(父慈子孝)에서 사랑(慈)을 베푸는 주체가 부(父)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특이하다.²⁶⁾

라고 지적된 바 있다. 이렇게 <안민가>에는 특히 어머니와 그에 대응

26) 임주탁, 『옛 노래 연구와 교육의 방법』(부산대학교출판부, 2009), 292쪽.

하는 신하의 구실과 역할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민가>를 지은 충담사는 신하의 지위와 구실을 회복하는 것이 ‘군·신·민’의 조화를 이루며 제 구실을 하는 길ियो, 이것이야말로 국가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안민(理安民)’의 길임을 제시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신하의 지위와 구실을 강조하는 데 대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상반된 두 해석이 제시되었다. 하나는 <안민가>에 나타난 신하의 지위와 구실에 대한 강조 현상을 신하의 최고 지위에 해당하는 상대등(上大等)을 비롯하여 17관등의 상위 관등의 자리에 인물이 임명되지 않고 임명되는 경우에도 빈번하게 사직과 면직이 반복되고 있던 경덕왕대의 정치 상황과 연관 지어 해석하는 것이다.²⁷⁾ 신권(臣權)의 중요성을 일깨움으로써 군·신이 조화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이안민(理安民)’의 요체를 제시하였다고 본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덕왕이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 곧 신하들을 누르기 위해 충담사를 매개로 재야 세력과의 제휴를 꾀하는 차원에서 불러들여 노래 짓기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임금이 아버지라면 신하는 어머니라고 한” 것을 “신하의 세력을 인정하고 무마하고자 하는 경덕왕의 배려”의 표현으로 본 것이다.²⁸⁾ 하지만 이러한 견해들은 하필 <찬기파랑사뇌가>를 지은 충담사를 초치하여 <안민가>를 짓게 한 이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신하의 지위와 구실을 강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신하’의 정체가 무엇이나 하는 점이다. <찬기파랑사뇌가>는 바로 이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바로 ‘기파랑’과 같은 인물이 바로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서의 신하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찬기파랑사뇌가>의 숨은 뜻, 곧 언표하지 않은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즉, <찬기파랑가뇌가>는 기파랑과 같은

27) 崔鶴璇, 『鄉歌研究』(宇宙, 1990), 117~130쪽.

28) 조동일, 『한국시가의 역사의식』(文藝出版社, 1993), 52~63쪽.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 곧 신하들’이나 ‘재야세력’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 <안민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하가 어떤 세력을 가리킨다고 보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인물이 신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에 대한 회구를 담은 것이다. <찬기파랑가>와 연관 지어 읽으면, <안민가>는 기파랑과 같은 화랑 출신의 인물이 신하가 된다면 자신이 기파랑을 죽어서도 기리고 찬양하듯이 인민들도 믿고 따르며 섬기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담아낸 노래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충담사는 기파랑과 같은 화랑 출신의 인물을 신하로 중용하여 사랑으로 자식을 보듬듯이 사랑으로 인민을 보살필 수 있도록 신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민을 다스려 평안하게 할 방도이며, 나라가 평안할 수 있는 길임을 제시한 것이다.²⁹⁾

화랑이 되는 인물은 신분으로는 진골 귀족이다. 진골 귀족 가운데에는 경덕왕의 통치 방식을 지지하는 이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도 적지 않았다. 소위 반(反)왕당파로 분류되는 진골 귀족들은 경덕왕의 중앙 집권적 관료체제 구축을 통한 왕권 강화 정책에 반대하였음이 분명하다. 실제로 경덕왕이 직면한 국가 사회의 위기 상황은 그 대립이 가시화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신하의 정체를 당시의 관료제 상의 관료로 보기는 어렵다. 충담사는 그들이 중심이 되는 통치 방식 때문에 국가 사회의 위기가 초래했다고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민가>에서 그 지위와 구실을 강조했던 ‘신하’의 정체가 진골 귀족이었음이 한층 더 분명해지게 된다. 왕권에서 소외된 진골 귀족³⁰⁾의 권력

29) 서철원, 「향가의 제재로서 화랑 형상의 문학사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29, 한국시가학회, 2010, 114쪽의 “실천의 영역에 있는 것은 신하의 ‘사랑’이다. 신하가 백성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을 때 임금도 ‘-답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사랑을 체현하고자 했던 ‘其意甚高’의 모습을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통해 형상화했던 것”이라는 논의는 ‘기의심고’의 의미 해석이 아니라면 필자와 유사한 견해로 수용할 수 있다.

30) 왕권에서 소외된 진골 귀족의 핵심은 내물왕 계통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무열왕 계통인 경덕왕이 궁중에서 향가를 지어 부르게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범패는 모르고 향가밖에 모른다고 한 월명사에게 향가라도 괜찮다고 한 것은 일시적인 승인 절차를 거친 것이다. 내물왕 계통이 왕권을 장악한 원성왕 때에 왕이 직접 <신공사녀가>를 짓고, 향가를 연주할 수 있는 악기로 추정되는 사내금(思內琴)을 정식으로 도입한 사실은 내물왕 계통에서는 귀족(호족) 연합 방식의 통

기반의 약화는 당연히 화랑도의 대사회적 역할의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것을 매개로 꿈과 희망을 유지하던 인민들의 실의와 좌절과 빠뜨릴 수도 있다. 기과랑에 대한 기억과 찬양은 그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충담사가 왜 유가적 패러다임을 활용하였는가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왕을 비롯하여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던 신하들은 기본적으로 유가적 통치 원리와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안민가>에서 특별히 신하의 지위와 구실을 강조했다고 해서 그것이 유가적 이념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신권주의(臣權主義)조차도 유가적 이념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충담사는 그 이념의 테두리 안에서 신하의 지위와 구실을 강조한 것뿐이다. 현실적으로 경덕왕이 신하의 구실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면, 신하의 지위와 구실의 회복이 궁극적으로는 국가사회 단위에서 부자자효의 윤리를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해 군주는 군주다워지고 신하는 신하다워지고 인민은 인민다워져 셋이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길이라는 데에도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충담사는 군주를 직접 비판하는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고도 군주가 군주다워지는 길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그 길은 인민들이 믿고 따르는 인물이 신하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길이다. 유가적 통치 원리 또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신하의 존재를 전제로 삼는다. 결국 충담사는 유가적 통치 원리와 이념을 지향하는 국왕과 측근의 관료들이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상과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당대 국가사회 통치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셈이다. 말하자면 메시지를 전하는 상대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사상에 기대어 자신의 통치에 대한 생각을 펼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³¹⁾ 이것은 거꾸로 말하자면 유가적

치를 유지하고자 하였음을 의미한다.

31) 이와 같은 언술 방식은 <정석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정석가>에 대한 논의는 임주탁, 『강화 천도, 그 비운의 역사와 노래』(새문사, 2004), 88-92

통치 이념이나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충담사가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까닭에 경덕왕은 <안민가>를 지은 행위를 “아름답게 여겨”³²⁾ 충담사를 왕사로까지 책봉하려 하였던 것이다.

결국 <안민가>는 유가적 사상을 표현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작품이 아니라 잠재적인 청자들이 가지고 있던 유가적 사상과 그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귀족층과 화랑 조직에 속한 미천한 인민들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작품인 셈이다. 그것은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보다는 기왕의 귀족 연합적 지배 체제의 의의를 일정하게 부각시킨 것인바, 충담사는 그 자체가 경덕왕이 적극 수용한 유가적 통치 이념과 원리라도 모순되지 않는 것임을 주장하였던 것이다.³³⁾

4.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해당 서사 문맥에서 <찬기파랑사뇌가>와 <안민가>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를 밝힌 셈이다. 그 관련성을 해명하는 실마리는 <찬기파랑사뇌가>에 대하여 ‘그 뜻이 매우 높다’고 한 데서 찾을 수 있었다. ‘그 뜻이 높다’는 것은 <찬기파랑가>의 함의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국가 사회의 통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하였다. 그 의미가 노래 자체에 설정된 의경을 넘어서는 까닭에 경덕왕은

쪽을 참조함.

32) 王佳之 『삼국유사』 권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33) 유가적 사상과 사유의 패러다임을 활용한 또 다른 사례는 국선 요원랑·예혼랑 등이 <대도곡>, <문군곡> 등의 노래를 지어 향가로 만들어 경문왕 앞에서 부르게 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경문왕 역시 혈연에 의한 왕위 계승을 추구하였던 바, 세 화랑은 그러한 왕의 생각이 유가적 통치 이념과 원리에 반한다는 점을 노래를 통해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국유사』 권제2 「기이」 제2 四十八景文大王.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안민가>를 짓도록 하였다. 충담사는 왕권에서 소외된 진골귀족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로서, <찬기파랑가>에서 비유적·상징적으로 표현하였던 통치 문제에 대한 생각을 <안민가>를 통해 현실적·구체적으로 드러내었다. 그 생각의 핵심은 기파랑과 같은 화랑 출신의 올곧은 인물이 신하의 지위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인민을 보듬도록 한다면 국가사회가 평안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충담사는 도교와 습합된 유가적 통치 방식의 정착을 추진하던, 메시지의 수용자(경덕왕을 비롯한 관료들)들이 익숙해 있는 사상과 사유의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부드러우면서도 적극적으로 통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귀족(호족) 연합적 통치 체제가 유가적 통치 이념과 원리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서론에서 제시한 두 가지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았을 뿐 아니라, <안민가>의 의미 해석을 둘러싼 쟁점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글에서와 같이 해당 서사를 이해할 때, <찬기파랑가>가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안민가>의 함의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민가>만 제시되었을 때에는 ‘신하’의 정체성을 가늠할 수 없어 신하의 지위와 구실을 강조하는 현실적 문맥을 파악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의 서사 가운데 경덕왕과 충담사와 관련한 서사를 합리적으로 읽는 방법을 아울러 제시한 셈이다. 향가 관련 서사의 독법의 일차적인 과제는 텍스트를 합리적으로 읽어내는 길을 찾는 것이다. 서사를 이루고 있는 부분과 부분의 상호 연관성을 명확하게 해명할 때 향가 작품에 대한 해석도 꺾어진 방향으로 진척될 수 있다. <안민가>의 의미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은 관련 서사에서 특정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독법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참고문헌

- 금기창, 「『安民歌』에 대하여」, 『어문학』 53, 한국어문학회, 1992, 43-64쪽.
- 김문태, 「〈안민가〉와 서시문맥-〈도솔가〉·〈처용가〉와 관련하여-」, 『도남학보』 13, 도남학회, 1993, 123-143쪽.
- 김승찬, 「안민가 연구」, 『인문논총』 27, 부산대학교, 1985, 1-16쪽.
- 김종우, 『향가문학연구』, 이우출판사, 1980, 75~179쪽.
- 나경수, 『향가문학론과 작품연구』, 집문당, 1995, 216-242쪽).
- 박노준, 「『안민가』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어문논집』 11, 안암어문학회, 1968, 122-143쪽.
- 박노준, 「찬기파랑가에 대한 일, 이의 고찰」, 『어문논집』 19, 안암어문학회, 1977 387-403쪽.
- 박수밀, 「〈찬기파랑가〉의 문학적 의미와 세계관」, 『동방학』 2,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1996, 63-82쪽.
- 변종현, 「안민가」, 『향가문학연구』(황폐강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일지사, 1993, 437-452쪽.
- 서철원, 「향가의 제재로서 화랑 형상의 문학사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29, 한국시가학회, 2010, 93-119쪽.
- 성호경, 「〈찬기파랑가〉의 시세계」, 『국어국문학』 136, 국어국문학회, 2004, 233-262쪽.
- 신영명, 「〈안민가〉의 정치사상」, 『우리문학연구』 31, 우리문학회, 2010, 63-86쪽.
- 신영명, 「〈찬기파랑가〉의 상징체계와 경덕왕대 정치사」, 『국제어문』 43, 국제어문학회, 2008, 91-120쪽.
- 양주동, 「논어와 국문학」, 『논어』, 현암사, 1966, 388~394쪽.
- 양희철, 「당대비평으로 본 ‘기의심고’와 〈찬기파랑가〉」, 『한국시가연구』

- 18, 한국시가학회, 2005, 43~76쪽.
- 엄국현, 「안민가>에 나타난 서술방식과 정치철학」, 『한국문학논총』 41, 한국문학회, 2005, 77-104쪽.
- 유효석, 「풍월계 향가의 장르적 성격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3.
- 윤영옥, 「안민가」, 『신라가요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0, 216-241쪽.
- 윤영옥, 「안민가의 이해」, 『어문학』 32, 한국어문학회, 1975, 57-80쪽.
- 이건호, 「<안민가>의 창작동기와 미륵사상 연구」, 『고시가연구』 11, 한국고시가문학회, 2003, 121-149쪽. 미륵사상
- 이도흠, 「「찬기파랑가」의 새로운 어석과 의미 해석」, 『문경 전영우박사 화갑기념 국어국문학논총』(수원대 국어국문학과, 1994), 669-700쪽.
- 이도흠, 「<안민가>의 화쟁시학」, 『동아시아문화연구』 23,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3, 43-90쪽.
- 이도흠, 「안민가와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화엄사상」, 『기전어문학』 3, 수원대 국어국문학회, 1988, 211-215쪽.
- 이도흠, 「풍월도의 실체와 풍류도 노래로서의 「찬기파랑가」의 해석」, 『신라학연구』 8, 위덕대 신라학연구소, 2004, 31-51쪽.
- 이완형, 「<찬기파랑가>에 숨겨진 의도와 노래의 기능」, 『어문학』 96(한국어문학회, 2007), 221-244쪽.
- 이호형, 「역사적 문맥에서 보는 안민가 소고-일연의 조목 설정 이유와 『예기』 해석의 의미를 점검하여-」, 『동국어문학』 10·11(동국대 국어교육과, 1999), 383-407쪽.
-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1981, 293-296쪽.
- 임주탁, 『강화 천도, 그 비운의 역사와 노래』, 새문사, 2004, 84-108쪽.
- 임주탁, 『옛노래 연구와 교육의 방법』, 부산대학교출판부, 2009, 277-298쪽.

- 정상균, 「〈안민가〉〈찬기파랑가〉 연구」, 『국어교육』 108, 한국어교육학회, 2002, 409-428쪽.
- 조동일, 「〈안민가〉에 나타난 정치의식」, 『한국고전시가작품론』(백영 정 병욱 선생 10주기추모논문집, 집문당, 1992, 133-151쪽.
- 조동일, 『한국시가의 역사의식』, 문예출판사, 1993, 52-63쪽.
- 조평환, 「충담의 향가에 대한 일고찰」,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4.
- 진창영, 「안민가·찬기파랑가와 노장사상」, 『신라학연구』 7, 위덕대 신라학연구소, 2003, 156-165쪽.
- 최선경, 「『안민가』 창작 배경의 의미와 성격」, 『열상고전연구』 13, 열상고전연구회, 2000, 148쪽.
- 최성호, 『신라가요의 연구』, 문현각, 1984, 51-55쪽.
- 최철, 「〈안민가〉 연구」, 『삼국유사의 문예적 연구』(김열규·신동욱 편), 새문사, 1982, I-29-40쪽.
- 최철, 「찬기파랑가 설화고」, 『동악어문연구』 10, 동악어문학회, 1977, 44-61쪽.
- 최철, 「찬기파랑가의 창작동인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61, 국어국문학회, 1973, 131-134쪽.
- 최학선, 『향가연구』, 우주, 1990, 117~130쪽.
- 하정화, 「신라향가에 나타난 유가적 윤리성-안민가와 찬기파랑가를 중심으로-」, 『동양예술』 8, 한국동양예술학회, 2004, 52-83쪽.
- 홍기삼,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연구」, 『동악어문연구』 29(동악어문학회, 1994), 1-52쪽.

<Abstract>

On Two Questions Related to Chungdamsa(忠談師)'s Anmin-ga(安民歌)

Yim, Ju-Tak

Why did King Gyeongdeok(景德王), 35th king of Silla Dynasty, ask Chungdamsa who had made Changiparang-sanoiga(讚耆婆郎詞腦歌), one of Hyangga, for him to make a song of ruling over the people peacefully? Why did Chungdamsa, as a Buddhist monk, present his opinion about the reign system of the days through Confucian paradigm and thought? For the two, I find answers as follows.

1. Ascertaining whether it is true that the meaning of Changiparang-sanoiga is high, King Gyeongdeok intended to check the meaning was related to the reign system of the days.
2. Chungdamsa presented explicitly his opinion at Anmin-ga, which was implicitly presented at Changiparang-sanoiga.
3. The opinion was not of Chungdamsa but of Jingol(眞骨) noble members who had left out of the reign group around King Gyeongdeok, and had maintained their Hwarang(elite youth in Silla Dynasty) organizations.
4. The meaning of Anmin-ga is this; "If ruling over the people peacefully, you must give a member of Jingol noble class like Giparang(耆婆郎), hero of Changiparang-sanoiga, important positions, like subject positions, and let them take care of the people like mother loves her children.

5. The reason why Chungdamsa presented that meaning through Confucian paradigm and thought is related to the fact the addressees of Anminga were well acquainted with them. Shortly, he, as a addresser, considered characteristic of addressees and conveyed the message to them gracefully.

I expect that this results could deepen our appreciating Anmin-ga, Changiparang-sanoiga, and real context of their descriptive text.

Key Words : Anmin-ga, Changiparang-sanoiga, Chungdansa, Hyangga

■ 논문접수 : 2011년 2월 28일
■ 심사완료 : 2011년 4월 10일
■ 게재확정 : 2011년 4월 15일